

# 다니엘의 책 - 번호 14

## 다니엘서 제2장 - 요약과 결론 제1부

Jeff Pippenger

2023-12-09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고 끝난다. 여기에서 다니엘서가 보완된다.” 사도행적, 585.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지칭한 진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2023년 7월부터 그의 백성을 위해 봉인을 떼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 다니엘서 2장은 말세의 짐승의 우상 시험의 맥락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낸다. 그것은 시험의 과정과 특정한 시험 기간을 밝혀 준다.

다니엘 2장의 시기와 과정, 곧 다니엘의 포로 생활 70년으로 대표되는 것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개신교도들의 시험 기간을 예표했다. 개신교도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여 로마의 딸들이 되었다. 예언적으로 딸은 자기 어머니를 예표하며, 로마는 예언적 짐승이다. 그들의 실패와 그에 이은 로마의 딸들로의 전환은, 그들이 짐승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역사에서 짐승의 형상의 시험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시험 과정은 다니엘의 포로 생활 70년으로, 또한 밀러주의 운동 동안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로도 대표된다.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에는, 짐승들을 묘사하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특정한 기간과 시험 과정이 있다. 이는 성경 예언에서 한 왕국이 또한 짐승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종교 지도층은 시험에 실패한 자들을 대표하고, 다니엘과 세 의인은 시험에 통과한 자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실패는 다니엘서 3장에서 확인된다.

시험의 과정은 다니엘서 1장과 2장 모두에 표상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최근에 제시된 진리들과 일치하는 특정한 예언적 이정표들이 있다. 1장에서는 “열흘”이 시험 기간을 대표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은 결과 다니엘에게는 더 아름답고 살진 모습이 나타났고, 다른 부류의 환관들은 왕의 식단을 먹은 자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예언적으로 왕은 왕국을 뜻하며, 예언에서 왕이나 왕국은 또한 짐승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므로 왕의 식단을 먹은 결과가 그들의 용모에 드러난 자들은 짐승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리는 것과 관련된 비밀을 이해하려고 구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리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예언적 '비밀'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 다니엘이 그 '비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생사를 건 일이었고,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짐승의 우상'

시험과 같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15.

다니엘이 ‘비밀’을 이해하고자 구하며 드린 기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특정한 이정표를 나타낸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기도’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두 가지 증거를 제공한다. 그 이정표는 모든 개혁선의 둘째 기별로 표현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두 기도의 예언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이는 상징적으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나타낸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두 번 반복되는데, 성경에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한다.

화이트 자매의 저술들에는 다니엘서 3장을 일요일법의 상징으로 가리키는 여러 언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첫째와 둘째 기별이 없이는 셋째 기별(다니엘서 3장)을 가질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렌 화잇은 짐승의 우상 시험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그리고 우리가 인침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정의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음악이 연주될 때 상징적으로 은혜의 문이 닫혔는데, 이는 3장이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의 음악은 두로의 음녀가 잊혀졌던 상징적 칠십 년이 끝날 때 땅의 왕들에게 부르기 시작하는 선율을 상징한다.

그 날에 두로는 한 왕의 수한대로 칠십 년 동안 잊혀지리라.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가 창녀처럼 노래하리라. 수금을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졌던 창녀여. 아름다운 곡조를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 네가 기억되게 하라. 칠십 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녀가 다시 그 샅을 좇으며,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화이트 자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세 가지 시험으로 본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던 많은 이들이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의 기별인 셋째 기별을 거절하였고, 마지막 초청이 있을 때에도 유사한 입장이 취해질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9년 10월 31일.

여러 증언에 따르면, 다니엘서 2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첫째 천사가 심판에 이르기까지 권능을 받는 역사는 다니엘의 포로 생활 70년으로 표상된다. 2장에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배경은 그 70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70년은 ‘일곱 때’의 상징이다.

9장의 기도는 칠십 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시작한다. 두 기도의 예언적 배경은 동일하다. 그것들은 동일한 기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지만, 둘 다 ‘일곱 때’라는 동일한 배경 속에 놓여 있으며, 또한 말세의 14만 4천의 역사 속에 있는 ‘기도’라는 이정표와도 일치한다.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할 때,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겨 가는 예언적 '전환의 시기'에 있다. 그 전환점은 또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라오디게아인'으로서 거리에서 죽고 '빌라델비아인'으로서 무덤에서 나오는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의 동일한 전환점과도 일치한다. 첫째 천사의 운동의 전환점은 다니엘의 전환점과 셋째 천사의 운동의 전환점 둘 다와 일치하며, 이 셋 모두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밀러파 운동에서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의 전환은 1856년에 '일곱 때'에 대한 '새 빛'이 주어지면서 일어났고, 이어 1863년에 '일곱 때'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일로 이어졌다.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 밀러파 시대의 첫째 천사의 운동, 그리고 우리 시대의 셋째 천사의 운동은 모두 서로 일치하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 전환점 모두는 '일곱 때'라는 맥락 안에 놓여 있다.

시험의 역사에서 다니엘은 빛을 받아 먼저 자신의 세 친구들과 나누는 전령을 대표하며, 이로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엘리아'의 예언자적 역할을 예표한다.

다니엘서 2장의 "비밀"은 성경 예언의 여덟째 왕국이 "일곱에 속한" 왕국임을 밝힌다.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최초의 표상이므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표상과 연결된다. 앞선 "일곱" 왕국에 속한 여덟째 왕국은 현대 바벨론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으로 확립하는 전환점을 가리킨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은 궁극적으로 예언적 역사 속 여덟째 지상 왕국을 지목한다.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왕국을 상징하므로,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관한 꿈이 나타내는 진리는 마지막 짐승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며, 이는 계시록 17장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꿈은 궁극적으로 여덟째이자 마지막 짐승의 형상에 관한 꿈이다. 곧 '짐승의 형상'의 꿈이다.

그것 자체가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일어나는 전환점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확증이지만, "비밀"은 또한 2020년 7월 18일 이후의 역사에 관해 이전 기사들이 밝혀 온 많은 내용을 한데 모아 확립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 기사들에서는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기간으로 대표되는 각 거룩한 개혁 운동의 네 가지 이정표가 언제나 동일한 주제를 지닌다고 제시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때에 있었던 그 네 개의 이정표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권능을 입는 것을 나타낸 첫 번째 이정표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세례였다. 그 역사에서 첫 번째 실망을 나타내는 두 번째 이정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세 번째 이정표는 '한밤중의 외침'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이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죽음과 부활의 살아 있는 표상인 나사로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나사로는 또한 한밤중의 외침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이 절정의 기적, 곧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의 사역과 그의 신성에 대한 주장 위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심판의 네 번째 이정표는 십자가였고, 그것은 또한 죽음과 부활이기도 했다. 그 네 가지 이정표의 기간은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기간으로 대표된다.

밀러파 역사에서 주제는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었고, 1840년 8월 11일은 그 원칙이 입증된 날이었다. 첫 번째 실망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의 잘못된 적용의 결과였다. 한밤중의 외침은 2,300년 예언과 2,520년 예언과 관련하여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의 완성이었고, 그런 다음 1844년 10월 22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때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밀러파 역사에서 네 가지 이정표의 주제는 모두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었다. 그 네 가지 이정표의 기간은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기간으로 대표된다.

다윗 왕 시대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궤"였다. 다윗이 권세를 얻게 되자, 그는 그 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로 작정했다.

다윗은 계속 나아가 점점 더 강대해졌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사무엘하 5:10

첫 번째 실망은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죄를 지었을 때였다. 세 번째 이정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 곧 웃사의 반역 이후로 언약궤가 보관되어 오던 곳을 복 주셨음을 깨달았을 때였다. 그 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개선 입성하기 위해 가서 언약궤를 가져왔고(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윗의 입성에 대해 지나친 분노와 "실망"을 드러냈다). 그 네 가지 이정표 각각은 언약궤로 상징된다. 그 네 가지 이정표의 기간은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생활로 상징된다.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이슬람이 풀러났고, 이어서 억제되었다. 2020년 7월 18일은 이슬람의 역할에 관한 실패한 예측이었다. 죽어 마른 뼈들을 되살리는 메시지는 "네 바람"에서 오며, 그것은 이슬람의 상징이고 한밤중 외침 메시지를 대표한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으로 인한 국가적 배도에 뒤따르는 국가적 파멸은 "셋째 화"의 이슬람에 의해 초래된다. 그 네 개의 이정표의 기간은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기간으로 대표된다.

첫째 천사의 운동은 셋째 천사의 운동을 나타내며, 밀러주의 역사에서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첫 번째 실망을 초래한 실패한 예측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실망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알고, 이상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려야 함을 깨달았다. 1843년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1844년에는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초기 문집, 247.

나슈빌에 대한 이슬람의 공격에 관한 증거는, 일요일 예배의 강제 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날 ناش빌 공격에 관한 증거와 동일하다. 예언의 영의 기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ناش빌에 대한 공격에 관한 예언은 예언의 영의 기록에 나와 있다. ناش빌에 관한 그 예언은 성취될 것이지만, ناش빌 공격에 대한 그 예언은 밀러파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실패했던 예언을 수정한 데 근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 번째 이정표에서 성취되며, 그 이정표는 '심판'을 대표한다.

예수께서는 항상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며, 2001년 9월 11일의 첫 번째 이정표는 이슬람의 공격이었으므로, 일요일 법령의 심판 때에는 ناش빌을 향한 이슬람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다른 대상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첫 번째 실망을 낳은 메시지를 바로잡는 메시지이다. 첫 번째 실망은 엘렌 화이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언에 시간 요소를 적용한 죄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

첫 번째 기별의 '권능 부여'에서 시작하는 네 가지 이정표는(다니엘에서는 상징적 칠십 년의 시작에 일어난다) 언제나 동일한 주제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2001년 9월 11일을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예언적으로 '감추어진 책'을 먹은 것이다. 실제로 그 진리를 먹은 사람은 매우 적었지만, 다니엘이 보여 주듯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정했다. 그럼에도 2001년 9월 11일이 예언의 성취였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이 이슬람이 아니라 부시 가문이나 글로벌리스트들, 예수회, CIA, 혹은 현대의 음모론자들이 자주 들먹이는 단골 대상들의 어떤 조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므로, 우리가 2001년 9월 11일에 예언적으로 무엇이 나타났는지에 관해 잘못 판단한다면, 우리는 '진리'인 예언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능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셈이 된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첫째 기별의 '권능 부여'는 둘째 화의 이슬람이었고, 그 권능 부여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 가져온 2001년 9월 11일의 권능 부여를 예표했다.

첫 번째 이정표의 이슬람은 마지막 이정표의 이슬람을 식별한다. 마지막 이정표는 심판을 나타내며, 미국은 일요일 법령에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에스겔 37장의 둘째 기별이며, 그 기별은 세 번째 이정표, 곧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다. 그것은 인침의 기별로, 이슬람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의 개선 입성으로 예표되었다. 한밤중 외침의 인침 기별은 이슬람에 의해 전해진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마태복음 21:5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은 '사방의 바람'에서 나오며, 이는 이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는, 일요일 법령 때 미국에 심판을 가져오고 그 칙령에 뒤따르는 국가적 파멸을 초래하는 권세로서의 셋째 화의 이슬람을 식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일요일 예배를 강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1. 첫 네 나팔은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21년에 최초의 일요일법을 시행한 후 이교 로마에 임했다.
2.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또한 이슬람의 첫째와 둘째 화이기도 한)은 538년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제정된 교황의 일요일 법령 때문에 교황권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3. 일곱째 나팔(이슬람의 셋째 화)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일요일 예배를 강제할 때 미국에 내려질 심판이다.

셋째 화의 이슬람은 2001년 9월 11일의 첫 번째 이정표를 나타낸다. 2020년 7월 18일 내슈빌에 대한 이슬람의 공격에 관한 실패한 예언은 첫 번째 실망, 곧 두 번째 이정표를 나타낸다. 에스겔 37장의 두 번째 예언으로 제시된 이슬람의 '네 바람'의 기별은 세 번째 이정표인 한밤중의 외침을 나타내며, 이어 일요일 법령 때 2020년 7월 18일의 실패한 예언이 성취되는 네 번째 이정표를 나타낸다. 이것들이 다니엘의 칠십 년 포로 기간으로

표상된 14만 4천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예언적 이정표이다.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관한 꿈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예표로 계시된 '비밀'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세 날 반 동안 죽어 있는 기간의 끝에 놓인 이정표이다. 9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레위기 26장 기도'는 다리오의 첫해에 드러졌다. 이는 그의 기도가 전환 지점들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 준다.

밀러파 역사에서의 전환점은 1856년이였다.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그때 밀러파 운동은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전환되었다. 같은 해 하이럼 에드슨이 "리뷰 앤드 헤럴드"에 게재한 기사들에서 "일곱 때"에 대한 "새 빛"이 나타났지만, 1863년("일곱 때" 후)에 "일곱 때"는 완전히 거부되었다.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과 둘째 왕국 사이의 전환점에서 다니엘은 "일곱 때"의 "흠어짐"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정되는 "그 기도"를 드렸다.

삼 년 반은 천이백육십 년을 상징하며, 그것은 다시 "일곱 때"를 상징한다. 2020년 7월 18일, 퓨처 포 아메리카의 라오디게아 운동은 예언적 기별을 다시는 시간에 매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을 드러냈다. 그 운동은 이어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흠어졌다". 그 "흠어짐"의 때의 끝, 즉 "열 처녀의 비유"의 "지체하는 때"의 끝에, 그들은 지금 "삼 일 반"의 "광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에 의해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

마태복음 25장과 하박국 2장이 말하는 '지체하는 때'에 자신들이 그때 놓여 있었음을 밀러파가 마침내 깨달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외칠 때 '죽은 두 증인'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흠어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 인식은 '기도'에의 부름이지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레위기 26장 기도로의 부름이다. 그 특별한 기도가 없이는 부흥이 없다. 그 부흥은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표시하며,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확인되듯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예언적 현상을 일으킨다.

그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흠어진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에스겔의 첫 예언은 뼈들을 한데 모았고, 이어서 그의 "네 바람"에 대한 예언은 거대한 "빌라델비아인들"을 강한 군대로 변모시켰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그 강한 군대는 그다음 "천사들의 구름"과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의 "깃발"이 된다.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드러내고 있는 다니엘 2장의 '비밀'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현상을 확증하며... 다니엘 2장의 다른 모든 예언적 요소들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적 순서와 일치한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는 바로 그 '시각'에 '기호로 높이 들려진다. 이는 그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 때에 높이 들려지기 때문이다. 그 '큰 지진'은 그 성의 십분의 일을 파괴하며,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취로 프랑스 혁명의 '지진'이 프랑스를 쓸어버렸을 때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열 왕'의 주된 왕이다.

그 지진의 완전한 성취는 "땅" 짐승에게서 이루어지며, "땅" 짐승의 왕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은 흔들림을 일으킨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의 완전한 성취는, "땅" 짐승이 "흔들리고" 국가적 배도가 국가적 파멸로 이어지는 때의 일요일 법령이다. 그때 두 증인은 "기치로 높이 들려진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다.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제자들, 곧 하늘로 기치처럼 들려 올려질 자들에게 하신 그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올려져 갔고, 구름이 그를 가려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 사도행전 1:7-9.

'기치'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기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때와 시기'를 적용하는 일에서 돌아서야 한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에게 드러난 그 "비밀"은, 은혜의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이다. 그 "비밀"에는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역사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열세째, 마지막 글자를 합쳐 만들어진 히브리어 단어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글자들을 합치면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단어가 된다. 예수는 "진리"이시며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 세 글자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나타내므로 모든 위대한 개혁운동의 구조를 대표한다. 그것들은 또한 다니엘서 12장에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된다"로 표현된 세 단계의 정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 세 단계의 시험과 정화 과정은 20여 년 동안 Future for America에 의해 제시되어 왔으나, 이제는 성스러운 개혁 노선들 속에 존재하는 "숨겨진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숨겨진 역사"는 은혜의 시한이 끝나기 직전까지 봉인되어 왔던 "일곱 우레"의 완전한 성취이다.

오랫동안 일곱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개요"를 나타내며, 또한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장래의 사건들"을 나타낸다고 이해되어 왔다. 이제 "진리"의 계시를 통해, 개혁 노선의 마지막 세 이정표가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임이 드러났다. 그 이정표들은 "첫째" 실망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실망으로 끝난다. 가운데 이정표는 한밤중 외침이다. 첫째 실망은 "지체하는 때"의 시작을 표시하며, 그 기간은 한밤중 외침에서 끝난다.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심판"에서 끝나며, 그곳에서 마지막 실망이 표시된다.

다니엘서 2장에서 첫 번째 실망은 다니엘이 자신이 '사형령'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에 그는 '시간'을 요청했고, 이로써 '지체의 때'가 시작됨을 알렸다. 그 결과 그는 '비밀', 곧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메시지는 느부갓네살에게 제시되어 그가 다니엘의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니엘이 제시한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판단'은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를 나타내는 세 가지 이정표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다니엘서 3장에서도 다루어지는데, 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확고히 사용되는 원리, 곧

'반복과 확대'의 원리를 나타낸다.

다음 기사에서 3장을 다루겠지만, 여기서 지적해 둘 가치가 있는 것은 3장에서 세 번째 이정표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실망으로 예표된 마지막 실망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는 실망으로 시작해 실망으로 끝나는 세 개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첫 번째 실망은 느부갓네살의 '사형령'과 연관되어 있고, 3장에서는 마지막 실망이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형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Future for America" 운동을 대표하는 "두 증인"의 "숨겨진 역사"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삼일 반"으로 표상된 "지체하는 때"가 시작되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깨어남과 부활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말하면, 두 증인이 깨어날 때 그들은 다니엘 2장에 표상된 "비밀"을 이해한다.

그 "비밀"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며, 그들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고 마지막 실망이 일어나는 때를 다루는 다니엘서 3장에 이를 때까지 그 기별을 선포한다. 첫 번째 실망은 2020년 7월 18일에 "다니엘"로 표상된 자들이 경험했다. 마지막 실망은 "열 왕"의 지도자인 미국이 국가적 배도가 이슬람에 의한 국가적 파멸을 불러올 때 경험한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2장의 요약과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았다. 그는 우상적 안식일을 도입하여, 겉으로는 그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듯 보이게 했다. 그는 이 우상적 안식일을 위해 기독교 세계가 주님의 안식일에 바쳐야 할 경배를 빼앗아 갔다. 세상은 전통, 곧 사람이 만든 계명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 그리하여 스스로를 높였듯이, 사탄도 그가 하늘의 예복을 훔쳐 마련한 이 거짓 안식일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8년 3월 8일.